

사하배움마당

제 18호

발행 사하구
주소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398번길 12(당리동)
전화 220-4801~6 팩스 220-4809 발행일 2019. 4. 20.
사하배움마당은 사하구 평생학습 구민기자가 만드는 신문입니다.

공간을 빌려 드립니다 편리하게 이용하는 동네방네 학습관

사하구는 구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 나눔으로 동네방네 학습관을 운영한다. 동네방네 학습관은 학생들의 등교시간 동안 비어 있는 학원이나 점심시간을 제외한 직원 식당을 학습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개인의 연습실을 다른 동아리들을 위해 공유한 동네방네 학습관은 2017년 4월에 개방한 아이비츠 학원을 시작으로 20개가 운영되었다. 2018년에는 5개를 더해 25개가 운영되었고, 이용 횟수 160회에 528명의 구민이 참여하였다.

특히 지난해 눈에 띄는 동네방네 학습관은 새동아 직업전문학교이다. 접근성도 좋고 개방시간도 길어 동아리 활동으로 대관이 많았다. 다대포 해변공원 관리센터와 하루마을 문화교실 등 여러 곳에서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3일 완성 의류, 실크스킨 등 동네방네 학습관의 특성을 살린 16개 프로그램에 216명이 참여하여 다양한 활동을 했다. 올해는 상, 하반기 프로그램을 개설할 예정이다. 상반기는 비문해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는 캘리 다육이 심기와 장애인 대상 걱정 인형 만들기 등이 준비되어 있다.

동네방네 학습관은 동아리 모임이나 배달강좌 신청시 장소가 없을 때, 자체적인 발표회나 전시회 장소가 필요할 때, 지역봉사 활동 등 커뮤니티 활동에 필요한

장소를 섭외할 때 이용하면 좋다. 사하구민 3인 이상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연중 신청 가능하다. 사용료는 무료다. 사하구의 동네방네 학습관은 남는 공간을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고, 구민들에게 꼭 필요한 학습공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가까운 곳의 동네방네 학습관 프로그램을 확인해 보고 평생학습의 기회를 만나보길 권한다.

상반기 동네방네 학습관 프로그램

동네방네학습관	프로그램명	일시
[1호점] 아이비츠 학원	자녀교육특강	5.21 (11:00~13:00)
[5호점] 소리너름	웃음치유	일시미정
[6호점] 형설모두학교	캘리 다육이 심기	5.14~5.20(화) (13:00~15:00)
[16호점] 동아기획	걱정인형 만들기	일시미정
[21호점] 하루마을문화교실	색채 심리	일시미정
[22호점] 새동아직업전문학교	도배기능사자격과정	5.13~6.10(월) (10:00~13:00)
[24호점] 흙 만지는 작업실	도자기 체험교실	일시미정
[25호점] 마실키즈카페	토탈공예	일시미정

문의 : 051-220-4806

이경녀 평생학습 구민기자
leekn61@hanmail.net

동네방네 학습관을 이용하세요.

- 신청대상** 사하구민 누구나(3인 이상)
- 신청기한** 연중(사용 한달전에 신청 및 협의)
- 사용료** 무료(정치, 종교적 목적이나 영업 활동 등 개인적인 목적에 대한 직·간접적 사용을 제한합니다.)

신청방법

Step 1 ▶ 사하구 평생학습관 홈페이지에서 이용 가능한 동네방네 학습관 검색후 신청
(<http://www.saha.go.kr/edu>)

Step 2 ▶ 사용 목적에 따라 공간기부자, 구청담당자, 사용자와 협의(구청담당자 051-220-4806)

Step 3 ▶ 사용 최종 승인 후 공간이용

사용시 유의사항

동네방네 학습관 은

공간의 기부를 바탕으로 운영됩니다.
공간사용에 대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아래의 사항을 약속해주세요!

- ▶ 사전에 약속된 시간 및 장소 사용에 대한 일정 엄수
→ 사전협의 없는 일정취소 등은 향후 사용제한
- ▶ 기자재 사용범위, 소음정도 등은 공간기부자와 사전에 협의하며 무리한 사용 요구 자제
- ▶ 깨끗하고 청결히 사용하고, 쓰레기는 되가져 가기
- ▶ 공간사용에 대해 감사한 마음으로 서로 도우며 함께 사용하기

보약같은 운동

신평 2동 액티브 시니어 운동교실



“하하하”
“호호호”

월요일 아침이면 어르신들의 웃음소리가 신평 2동 행정복지센터 강의실에 가득 찬다. 강사의 “하하하 웃음소리 5초간 발사”의 구령에 맞춰 복근이 자극되도록 최대한 큰 소리로 웃는다.

‘액티브 시니어 운동교실’은 먼저 동작을 설명하고 연습해서 지금 배우는 자세가 왜 필요한지 알게 한다.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자세를 차근차근 가르친다. 특히 복근, 허벅지근육, 엉덩이근육 키우는 방법을 가르쳐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알려준다.

윤성영(물리치료사) 강사는 바른 동작을 배워 실제 생활에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

했다. 그는 “노인 인구 비율이 높은 부산에서 꼭 필요한 어르신 운동교실이 부산 전역에 전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체근력강화와 균형을 찾는 운동은 건강하고 활동적인 노년을 보내는데 필수적이라고 전했다.

서기순(72세·하단동) 수강생은 기초를 알고 배우니까 운동 과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김택임(73세·하단동) 수강생은 과격한 운동이 아니라서 따라하기가 수월하고 계속하니 운동효과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양승연(72세·신평동) 수강생은 “20년간 수영으로 다져진 몸이라 시니어 운동이 만만하게 보였다. 하지만 강사의 지시에 따라 운동을 하고 나면 땀도 나고 몸이 개운하다”라며 남편도 같이 다니고 싶어 한다고 자랑했다.

액티브 시니어 운동교실은 6월 17일까지 신평 2동 행정복지센터 2층에서 열린다. 매주 월요일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진행된다. 구민들은 내 몸의 보약 같은 운동을 직접 체험해 보기를 권한다.

문의 : 신평2동행정복지센터 220-4909

김민정 평생학습 구민기자
cute0114@hanmail.net

학교로 『찾아가는 창의수업』개강



사하구는 학교에서만 의존한 교육을 지역 내 다양한 인적, 물적 자원과 연계하여 4월 1일부터 ‘찾아가는 창의수업’을 실시한다. 찾아가는 창의수업은 문예, 진로, 심리, 인성, 스포츠, 탐구 6개 분야 67개 프로그램을 26개 초등학교에서 4월부터 12월까지 실시될 예정이다.

수업에 참여하는 강사는 ‘2018년 사하교육콘텐츠 발굴’ 공모를 통해 선발된 교육 프로그램 강사로 구성되어 있고 수업 운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은 사하 다행복교육지구에서 지원한다.

문의 : 사하구 다행복교육지원센터 220-4936

<http://www.saha.go.kr/happyedu>

손현아 평생학습구민기자
ssnyen@hanmail.net

기 획



삶을 풍요롭게 하는 다대동 도서관

사하구에는 17개의 작은도서관이 있다. <사하배움마당>은 올 한 해 동안 17개의 작은 도서관을 가까운 지역끼리 묶어 6회에 걸쳐 소개하고자 한다.

두 번째 소개할 작은도서관은 다대 2동의 낮개 작은도서관과 두송작은도서관이다. 더불어 사하구 거점도서관으로서 작은도서관을 통합운영하고 있는 다대도서관도 엿보기로 한다.

2016년에 개관한 낮개작은도서관은 비교적 최근에 지어진 덕분에 예쁘고 깔끔한 외관이 눈에 먼저 들어온다. 많은 아파트 단지로 둘러싸인 가운데 있어서 이용자 접근성이 매우 좋다. 라브랜드 중심상가와 낮개가로공원이 앞뒤로 조성되어 있어 편리함과 쾌적함도 돋보인다. 엄혜민(두송중3) 학생은 초2, 초6 동생뿐만 아니라 해운대에 사는 사촌들도 놀러 오면 모두 낮개도서관을 많이 이용한다며, 집 가까운 곳에서 자주 이용할 수 있는 작은도서관에 고마움을 표했다. 장서는 9천 2백여 권이며, 일 이용자 수도 130명 정도로 많은 편이다. 보통은 도서십진분류표에 의해 책이 진열되어 있는데, 이곳은 특성화코너로 차별화되어 원하는 책을 찾기 쉬운 점이 눈에 띈다. 일과 여성, 노인특화, 일반·청소년, 유아·아동으로 분류한 새책 코너와 학습만화코너 등으로 나뉘어져 있다.

두송작은도서관은 다대2동 행정복지센터 옆 지하에 마련되어 있다. 2005년에 개관한 사하구 1호 작은도서관으로, 이용자 수가 많아서 처음에는 바닥에 엎드려 독서나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한다. 2016년 사하구청의 일부 지원과 지역주민이 십시일반으로 모아 리모델링 공사를 거친 덕분에 지금은 밝고 넓은 도서관이 되었다. 도서관의 변천사를 함께 겪어 오며 13년째 자원봉사를 해 온 분이 있을 정도로 운영위원들의 책임감과 자긍심,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교육열이 도서관을 발전시켜준 보이지 않는 힘이다. 꿈이룸방, 꿈나눔방에 가득찬 학생들의 공부 열기 또한 아름답게 보인다.

다대도서관은 2010년에 개관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 경치가 좋기로 유명한 도서관으로 선정된 곳이다. 5층 종합자료실 창가 열람석에 앉아서 바라보면 산과 모래해변, 바다와 하늘이 시원스레 눈앞

에 펼쳐진다. 현재 일반도서, 아동도서, 다문화도서를 포함한 총 11만여 권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도서관 입구에는 무인민원발급기도 있어서 이용자에게 또 다른 편리함을 제공한다. '더책 앱(APP)'을 다운받은 후 책 위에 스마트폰을 올려놓으면 자동으로 책을 읽어주는 더책 서비스도 수요에 맞추어 점점 확대하여 구입하고 있다. 가까운 동네서점에서 신착도서를 바로 대출한 후 도서관으로 반납하는 '바로대출' 서비스도 이용해볼 만하다.

가장 대표적인 평생교육기관인 작은도서관이 구민 가까이 있어서 삶이 더욱 풍요롭다.

문의 : 낮개작은도서관 266-0027

두송작은도서관 220-5386

다대도서관 220-5865

김미영 평생학습 구민기자
ivy1201@hanmail.net



01 낮개작은도서관



02 두송작은도서관



03 다대도서관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 자격증 교실

사하구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한국어 능력 검정시험(TOPIK)을 준비하기 위한 한글교실을 개설한다.

전년에 열렸던 달빛한글교실에 이어 2회째 문을 열게 되는 이 강좌는 다가오는 7월 7일 한국어 능력 검정 시험 일정에 맞추어 4월 28일부터 10주간 진행 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진행되는 강의는 외국인 근로자 뿐만 아니라 예비근로자인 결혼이주여성도 포함하여 더 많은 대상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실질적인 외국인 근로자들의 수요에 맞춰 한국어 자격증(TOPIK)을 교육내용으로 구성하여 눈길을 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비전문취업비자(E9)에서 전문취업비자(E7)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한국어 능력 검정시험(TOPIK) 2급 이상의 합격이 필요하다. 우리가 외국계 회사에 취업을 하려면 토익점수가 필요하듯이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TOPIK 점수가 필요

한 것이다. 이번 강화를 준비하는 담당자 최영조씨는 "전년의 달빛한글교실에서 수강생들의 높은 학습의욕으로 사하구의 높은 평가를 받아 이 강화를 다시 개강하게 되었으며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과 결혼이주여성들이 참여하여 한국사회 및 기업문화 조기 적응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이번 강좌는 한국어 능력 검정시험에 좋은 성적을 거두어 한국에서의 취업활동을 원활하게 이루어 감은 물론이고 고국에 돌아가 한국어 강사나 여행가이드로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외국인 근로자 한글교실은 매주 일요일 오후 2시~5시 신평1동 동매사랑 행복센터 2층 강의실에서 6월30일까지 열리며 중도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의 : 사하구 평생학습과 220-4806

박강균 평생학습 구민기자
alberto1@hanmail.net

밥상이 생명이다

건강 백세를 위한 똑똑한 밥상



당과 소금을 줄이자!

사하아카데미 올해 첫 강의 주제는 '건강 백세를 위한 똑똑한 밥상'이었다. 강사로 나선 임경숙(수원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는 잘 먹은 것은 몸에 좋은 영향을 주지만 잘못 먹은 것은 몸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평범한 주변 이야기로 강의를 시작했다.

그는 "건강 수명을 줄이는 위험 인자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는 것이 나쁜 식습관이다."라고 말하며 암 예방을 위한 건강한 식재료 10가지를 소개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쌀밥은 현미밥으로 바꾸어야 한다. 둘째, 보리의 베타글루칸 성분이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암 발생을 예방한다. 셋째, 두뇌발달과 노화 방지를 위해 비타민 E가 많은 견과류를 먹어야 한다. 넷째, 싱싱한 등푸른

생선으로 단백질, 오메가 3, 지방산을 섭취해야 한다. 다섯째, 들기름으로 오메가 3, 알파리놀렌산을 섭취한다. 여섯째, 가격이 저렴한 닭고기는 저지방, 고단백 식품이다. 일곱째, 콩을 재료로 한 다양한 식품, 특히 청국장을 먹는다. 여덟째, 미역을 한 달에 두 번 정도 섭취한다. 아홉째, 채소는 파이토케미칼을 다량 함유하고 있으므로 항산화 영양소와 항암제로 훌륭한 식품이다. 마지막으로 녹차의 카테킨 성분은 암을 예방한다.

건강장수를 위한 위대한 밥상은 하나의 체인이라고 강조했다. 달고 짠 음식이나 기름진 고기, 쌀밥 중 어느 하나라도 섭취한다면 건강한 체인이 되지 못한다고 했다. 금목걸이에 고무줄을 연결하면 그건 이미 금목걸이가 아닌 것처럼 식습관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번 사하아카데미는 '달고 짠 음식을 덜 먹고 과음을 삼가고 적절한 운동을 하며 금연해야 한다.'는 가장 쉬우면서도 어려운 답을 되뇌는 시간이었다.

김광숙 평생학습 구민기자
secan57@hanmail.net

아름다운 그대

애항심을 북돋아주는 역사 해설사 김미영 씨



“사하는 정말 멋진 곳입니다. 강과 바다, 산, 섬이 공존하는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훌륭한 조상, 유물이 있지요. 이런 사하를 알면 애항심은 저절로 생깁니다.” 김미영 (40세·다대동) 역사 해설사는 사하 자랑에 침이 마를 새가 없다.

김미영 씨는 10년 전 사하구로 이사왔을 때만 해도 사하구가 썩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랬던 그녀의 사하 사랑은 평생학습관에서 진행한 역사고우니 강좌를 수강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자녀들이 학교에서 역사를 배우고 알아 가는데 그녀가 아는 역사는 시험 보기 위한 암기식 정도였다. 한국 역사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사는 사하의 역사라도 알아야겠다는 마음으로 역사고우니 과정을 수료했다. 그녀는 사하 역사고우니로 활동을 하면서 사하 사랑에 푹 빠져 하루해를 짧게 살고 있다.

김미영 씨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사하 역사를 해설할 뿐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문화관광 해설도 하고 있다. 그녀는 사전 준비가 철저하기로 소문이 났다. 특



히 아이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시청각 자료를 많이 준비한다. 해설하기로 한 장소를 사전에 서너 번씩 탐방하며 연습하는 것은 물론이고 당일 몇 시간 전에도 사전답사를 잊지 않는다.

김미영 씨는 감동적이었던 시간으로 초등학교와 괴정동 재래시장을 경유하여 회화나무가 있는 곳까지 탐방했던 때를 꼽는다. 온누리 상품권으로 물건 사기를 체험하던 학생이 “마트

하곤 다르게 여긴 인정이 있어요. 할머니가 덤으로 더 주셨어요.”라고 말하는가 하면 자신의 것을 사기에 앞서 엄마 것, 친구 것 등을 고르는 모습을 보면서 학습 이상의 가슴 뿌듯함을 느꼈다고 한다. 반면 다대진성을 탐방했을 때 성터에 건물이 들어서 있고 쓰레기가 가득한 모습을 보며 우리 문화재를 잘 보존하지 못한 무지함이 부끄러웠다고 말한다.

결혼 전 유치원 교사였던 그녀는 유치원 교사로 재취업을 하면 수입은 조금 더 있을지 모르지만 내 고장 사랑은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한다. 구연동화 대회에서 대상을 받고 어머니 보조교사로 활동했던 경력이 역사 해설사 김미영 씨에게 그대로 녹아 있다. 유치원, 초등학교, 도서관, 문화관광과 등 그녀를 찾는 곳이 많아졌다.

문화관광과 담당자는 얼마 전 다른 시 공무원이 참여한 몰운대 탐방이 갑자기 잡힌 일정이었는데도 김미영 씨의 해설은 폭발적 인기를 얻었다고 전한다. 동아리 ‘사하고인돌’ 김나미 (55세·당리동) 회장은 “자료수집, 대본 작성이 뛰어나 김미영 씨 덕분에 동아리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버릴 데 하나 없는 보석 같은 존재입니다.”라며 칭찬이 자자하다.

김미영 씨는 사하자원봉사센터와 사하구 청소년문화의 집을 통해 봉사를 하며 학부모 서포터즈로도 활동하고 있다.

이미성 평생학습 구민기자
merrygold2971@hanmail.net

손으로 장애를 넘다

수어통역사 과정 개설

사하구 평생학습관은 비장애인이 농아 장애인을 이해하고 소통할 목적으로 ‘수어手語통역사’ 과정을 개설했다. 3월 18일 첫 수업을 시작으로 5회차 수업까지 진행되었다. 수화에 관심이 있거나 새로운 분야에 도전을 원하는 사하구 주민들이 월요일 저녁마다 학습관 강의실에 모인다. 농인들의 언어인 수화를 배워서 봉사를 하거나 국가공인자격증인 수어통역사 자격을 취득하기를 원하는 학습자이다.

아직은 수어라는 말이 생소하지만 2016년 한국수어법 제정으로 수화의 공식명칭이 ‘한국수어’로 바뀌었다. 수어의 개념 안에 수화와 제스처가 포함되어 있다. 수어통역사가 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점은 농인들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농인들을 자주 만나서 그들의 문화와 사고방식을 이해해야 한다.



강의가 시작되면 먼저 수어로 인사를 한다. 강사는 지문자指文字와 지숫자指數字를 매일 연습하기를 강조한다. 지문자와 지숫자를 알면 기본적인 대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일 연습해야 한다. 지문자와 지숫자는 수

화에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보충하기 위해 문자 언어를 손모양이나 손동작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수어통역사인 나희아(성모병원 수화통역실) 강사는 수어를 빨리 익히려면 수어가 체득될 수 있도록 늘 연

습하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한다. 그리고 농인들이 있는 곳을 찾아 봉사하면서 수어를 익히면 농인의 문화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한다. 그녀는 “수어통역사를 그냥 기본적인 직업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사회적 약자인 농인을 사랑의 마음으로 이해해주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농인을 만나야 한다”는 당부의 말을 전한다. 조민진(31세·하단동) 학습자는 평생학습관 홈페이지를 검색하던 중 특별한 프로그램이 개설되어서 수강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는 평소에 접하기 힘든 수업이라 새롭고 재미있으며 자격취득까지 도전해보고 싶다고 한다.

문의 : 사하구 평생학습관 220-4117~8

고명옥 평생학습 구민기자
arm5013s@naver.com



예술과 일상을 만나게 하다

공예 동아리 '아름다운 손'

‘아름다운 손’은 공예를 좋아하는 사람이 모여 다양한 수공예 작품을 만드는 동아리다. 2015년 모임을 시작할 때는 5명이었지만 현재 11명이 활동하고 있다. 장림동 동네방네 학습관과 회원의 공방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워크숍을 열어 서로 배우고 내 역량도 키운다. 처음에는 코바늘도 잡지 못했는데 수세미 만드는 것부터 열심히 배워 지금은 전시회에 출품할 정도로 실력이 향상된 회원도 있다.

회원 중 4명이 마을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아름다운 손은 작년 여름에는 재능기부를 하였다. 여름방학 특강으로 장애인과 스텐실 (천 가방에 글자나 무늬 그림 따위의 모양을 오려낸 후 그 구멍에 물감을 넣어 그림을 찍어 내는 기법) 을 하였다. 어린이를 대상으로는 스텐실과 도자기 핸드페



인팅도 하였다. 또 고우니 여성아카데미에서는 물고기접시 만들기를 했는데 반응이 좋아 어르신 한글교실에서도 만들었다. 회원 방영란(37세·장림동) 씨는 “정성들여 만든 서로의 작품을 알아주고 평을 해주니 성취감을 느

낀다.” 고 말했다.

아름다운 손은 3월 16일부터 29일까지 다대동 두송 생활문화센터에서 수공예 작품 전시회를 열었다. 4 번째로 열린 이번 전시회에는 봄의 화사함을 느끼기 위해 보라색 바탕을 주제로

한 작품들이 발길을 멈추게 했다. 테디베어 박물관에 납품했던 곰 인형과 조명기구를 꾸민 서양매듭도 눈길을 끌었다. 회원들은 흥티 마을 주민이 직접 농사지어서 보내준 피마자 씨앗으로 어떤 작품을 만들지 구상하고 있다.

아름다운 손은 바쁘게 활동하고 있다. 올해 초 부산어촌박물관에 계획서를 제출하여 역량 있는 동아리로 인정받아 6월에 전시회를 하게 되었다. 이소영(53세·구평동) 회장은 어촌에 관련된 작품을 전시 할 것 이라는 뜻을 내비쳤다. 그리고 많은 회원이 가입하여 아이디어도 공유하고 의견과 마음을 일치시켜 아름다운 손 동아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밝혔다.

김필본 평생학습 구민기자
shipbun@naver.com

마을이 키우는 아이들

다행복교육지원센터 마을방과후 아지트 운영



초등학생이 학교를 마치고 학원이 아닌 마을의 특별한 공간으로 간다. 그 공간에서는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복습하고 예습하며 책 놀이와 책 읽기도 한다. 친구들과 어울려 건강한 생활 습관을 기르기도 하고 예절도 배운다. 이곳은 ‘마을방과후 아지트(돌봄)’이다. 마을 활동가와 마을교사가 초등학생을 안전하게 돌보고 학습 지도도 하는 곳이다.

사하구 다행복교육지원센터는 두송생활문화센터와 물문대종합사회복지관의 공간을 빌려 마을방과후 아지트(돌봄)를 3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두송생활문화센터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물문대종합사회복지관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되며 초등학생은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배움터별로 선착순 10명을 모집한다. 지원자가 많을 경우에는 맞벌이가정 자녀, 저학년을 우선 선발한다. 학교 돌봄교실 혜택을 받지 못한 학생도 우

선 순위에 포함된다. 매 월 문화, 인성, 진로, 스포츠 분야의 특강이 준비되어 있고, 화·목요일마다 특강에 맞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수업에 필요한 재료비와 교재비는 따로 없다.

물문대종합사회복지관의 마을방과후 아지트(돌봄)를 이용하는 최유현(8세·응봉초) 학생은 “친구들이 반겨주고 맛있는 간식을 줘서 좋아요. 학교 수업 받는 것보다 더 재미있어요.” 다른 학교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어서 더 재미있고 말했다. 아이들을 반갑게 맞이하는 마을활동가 신미애(40세·하단동) 씨는 종이접기 하나에도 아이들이 신나게 노는 모습을 보며 마을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의미를 생각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문의 : 사하구 다행복교육지원센터

220-4936

<http://www.saha.go.kr/happyedu>

김미연 평생학습 구민기자
01hanthis@naver.com

청소년의 청소년에 의한 청소년을 위한

사하구 청소년 문화의 집

학교와 학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청소년은 여가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또래와 추억을 만들고 다양한 체험을 할 만한 곳은 없을까. 사하구에는 청소년이 건강한 여가시간을 보내고 진로탐색을 하도록 도와주는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다. 사하구 청소년 문화의 집은 청소년이 주체가 되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평생학습기관이다. 도시철도 1호선의 마지막역에서 내려 5분 정도 버스 차고지 방향으로 걷다보면 쉽게 찾을 수 있다. 눈앞에 넓은 다대포해수욕장이 펼쳐져 찾아가는 길도 즐겁다. 음악실부터 진로체험을 할 수 있는 THE DREAM 실 까지 이용할 수 있는 공간도 다양하다.

사하구 청소년 문화의 집은 청소년 사업과 방과후아카데미,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팀이 서로 지원하고 협력한다. 청소년 사업은 학교와 연계한 창의체험과 진로체험 활동을 지원한다. 특히 청소년 동아리와 운영위원회는 청소년이 주체가 되어 자율적으로 활동하는데 의미가 크다. 운영위원회는 청소년 시설과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하고 청소년 권익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일도 한다. 동아리는 14세~24세까지 5인 이상이 모이면 만들

수 있다. 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프로그램도 우선 참가할 수 있다. 동아리 활동을 하면 재능기부도 하며 봉사시간도 인정받는다. 현재 11개 동아리가 있고 댄스 동아리와 환경봉사 동아리인 ‘그린라이트’의 활동이 활발하다.

방과후아카데미는 방과후 돌봄이라 할 수 있다. 하교하고 온 청소년의 학습을 도와주고 간식도 제공한다. 초등 5.6학년이 대상이고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매일 오후시간에 진행하고 있다. 진로교육지원센터는 진로와 관련한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지원한다. 초등 5학년 이상 학생과 학부모가 이용할 수 있다. 진학정보를 얻을 수 있고 진로 갈등이나 고민을 전문가에게 상담도 받을 수 있다. 학교와 연계하여 지역의 현장직업체험과 프로그램을 이용하도록 도와준다.

문의 : 사하구 청소년문화의집 261-0924

www.sahayouth.or.kr

김정숙 평생학습 구민기자
kjs5328@hanmail.net

